

#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전북 3곳 선정

군산 고군산군도 방축도·정읍 송죽(솔티)마을&월영습지·완주 위봉폭포&위봉사&위봉산성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가 최종 선정한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군산 고군산군도 방축도, 정읍 송죽(솔티)마을&월영습지, 완주 위봉폭포&위봉사&위봉산성' 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의 관광지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혼잡도가 낮은 관광지 중 바다, 섬, 계곡, 숲 등 여름휴가지로 매력적인 곳 중심으로 선정됐다.

방축도는 전북 군산시 고군산군도에 속한 섬으로 고군산군도의 서북단에 위치해 방파제 역할을 하여 불어진 이름으로 동백숲길과 해변 산책로가 어우러진 걸기 좋은 섬으로 유명하다.

새만금 방축도와 고군산군도가 연결돼 육지 섬이 된 장차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분정도 산책을 하다 보면, 방축도의 명물인 독립문바위와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다.

방축도 출렁다리는 무인섬인 광대도와 연결된 83m의 인도교로 2021년 개통됐으며, 출렁다리 구간의 트래킹 코스는 독립문 바위를 중심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 고군산군도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 '내장산국립공원'은 서래봉과 까치봉 등 아홉 봉우리의 산세가 유난히 수려하고 아름다워서 '산 안에 숨겨진 보물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반의 금강산이라 불리고 있다.

솔티숲은 지난 2010년까지 국립공원 지역으로 보전돼 오던 송산마을의 뒷산과 앞 도랑의 생태자원을 소재로 월영습지, 화전민터, 전주



군산 고군산군도.

교 공소 등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스토리와 생태탐방프로그램을 운영중인 산림체험형 생태관광지이며, 2018년에 '월영습지와 솔티숲'이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히, '월영습지'는 과거 경작지로 활용되다가 약 40여년간 방치돼 자연적인 천이가 이뤄져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완주 위봉폭포'는 높이 60m의 2단 폭포로써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장관을 이루면 답답하게 닫힌 가슴을 시원스럽게 열어준다.

수량이 많은 여름철, 폭포의 장관은 더욱 빼어나지만, 겨울에는 풍광 얼어붙은 하얀 비단 폭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이의 눈길을 끈다.

'위봉사'는 세 마리 봉황이 날고 있는 자리에 절을 짓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며, 웅장하기로 유명한 보광명전 지붕의 용마루에는 청기와가 고색창연하게 박혀 있다.

위봉사 입구에 인화문으로 다시 피어난 분청사기 역사가 전승하고 계승하고 있는 봉강도예가 있다.

'위봉산성'은 1675년 쌓은 것으로 총 둘레가 8.5km에 달하는 대규모의 산성이다.

유사시에 전주 경기전의 태조 초상화, 그의 조상을 상징하는 나무패를 피난시키려고 성을 쌓았는데,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초상화와 나무패를 성안으로 가져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BTS의 여름화보촬영지(썸머 패키지)로 알려지며, 유명세를 더하고 있다.

비대면 관광지 25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종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멈춘 일상이 회복되는 요즘이지만, 안심관광지를 중심으로 전북의 알려지지 않는 관광지의 홍보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재활용품이 '자연속 예술작품'으로 변신

김제문화예술회관, '환경미술전, 리사이클 아트플레이' 인기몰이

김제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오는 5월 26일까지 개최되는 2022년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환경미술전, 리사이클 아트플레이'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한창 인기몰이 중이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진행중인 이번 전시회에서는 페비닐 몬스터, 플라스틱 빨대 왕도마뱀, 바그릿 표범, 목재펠트 퍼즐 인간 등 일상의 평범한 재활용 소재들이 자연속 예술작품으로 변신해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환경의 소중함과 사물을 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볼 수 있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준비했고,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36개소에서 1천여 명이 넘게 예약을 마쳤다.

이병찬 등 우리나라 대표 환경작가 5명이 폐건축자재·페비닐봉지·재생종이 등으로 만든 15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작품 해설과 함께 '재생종이로 김제화본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지구촌의 인간과 생명의 공존 이야기, 생명 존중, 생태 환경, 자원 재활용 등 창의력과 자연의 소중함을 재인식시키고 어른들에게는 자가의 해안으로 창안된 현대미술의 진수를 느끼게 해 주고 있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회는 기간일 동안 휴관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무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북도, 국제관광 대비 '중화권 방한안심관광 웹투어'

전북도가 한국관광공사(KTO)에서 주관하는 '중화권 방한안심관광 웹투어'와 연계, 국제관광 시장 재개 대비를 위해 17(화)부터 18(수)일까지 이틀간 국내 주요여행업체 및 관계자 등 10명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마케팅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웹투어를 통해 전북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를 홍보하고, 지역의 특산품을 소재로 한 체험여행 상품을 기획해 전북도 외래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홍삼'의 고장 진안군에서는 홍삼 전문연구가로부터 진안과 홍삼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안 홍삼 튀김 만들기', '홍삼차 마시기' 등이

진행됐다. 이후 방문단은 전북 인바운드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미아산 도립공원을 둘러 답사와 급담사 등을 둘러보았다.

도는 또, 17일 전북관광지원 홍보 및 상담회의 '전북관광 간담회'를 전주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내 여행업계, 체험업계, 민간여행업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중화권 인바운드 여행업계 방문단과 전북여행 상품 기획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도내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졌다.

18일에는 전주한옥마을 일원 도보여행과 함께, 모주 만들기 체험 후 정주수목원을 돌아보며, 전북도 1박2일 일정을 마무리 한다.

/유호상 기자

## 전북대 민주화 운동 대표 '이세종 열사 추모 사진전'

전북대박물관 중앙홀서 제42주기 5.18 기념 열사 유품 27점 전시

전북대학교역사관(관장 김은희)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전대역사 특별전 '5.18의 울림, 이세종 열사 추모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제42주기 5.18을 기념해 전북대학교의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이세종 열사를 추모는 자리다. 전시는 16~21일, 6월 2~30일까지 각각 전북대박물관 중앙홀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열사의 유품 27점이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 새벽 1시 30분경,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이세종 열사(당시 농학과 2학년 재학)가 온몸이 멍들고 피투성이인 채 주검으로 발견됐다. 열사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아오나 1993년 당시 주검을 검안했던 전북대 이등근 교수의 추락 전 계명군의 집단폭행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5.18의 울림, 이세종 열사 추모 사진전.

결국 1998년 10월, 광주민주화 관련 보상심의회에서 5.18 사망자로 인정돼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1999년 4월 광주 국립5.18민주묘역에 안치됐다.

이에 대학 구성원들은 열사를 기리기 위해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5월 17일 추모식을 열

어 5.18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한편 이번 사진전에 소개된 열사의 유품은 2010년 유가족이 전북대학교역사관에 기증한 것이다. 전라고등학교 재학 시절 모습이 담긴 사진과 열사의 친필이 남아 있는 고등학교 교재는 꿈 많았던 순수한 청년 이세종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험표는 전북대학교와 첫 인연을 맺은 상징적인 유품이다. 열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피 뚫은 의복과 시신을 덮었던 고기 등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이 담겨있다.

김은희 관장은 "열사의 유품은 민주화 역사 자료일 뿐만 아니라 5.18정신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잇는 소중한 자료"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전북대뿐만 아니라 전북지역의 5.18정신을 고양하고, 이세종 열사의 청년정신이 다시 부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창 황윤석 실학도서관 착공

국내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해 화제를 모은 고창군 '황윤석 실학도서관'이 착공에 들어갔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된 생활SOC복합화 사업인 '황윤석실학도서관 건립사업(고창읍 일곡리 뉴타운일원)'이 드디어 첫발을 내딛었다.

도서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검토 승인,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건축설계 공모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지난 4월 군민공모를 통해 '황윤석실학도서관'으로 명칭

이 확정됐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기인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설계를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큰 나무 아래서 책을 읽는 느낌을 내기 위해 목구조로 설계하고, 2층 건물이지만 비대칭적인 지붕이 내는 착시효과로 한국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살렸다.

도서관은 총사업비 190억원(국비 59, 지방비 131)을 투입해 건축면적 3815㎡,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2024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지하1층은 동아리실 등 생활문화센터, 지상1~2층은 개방형 열람실, 자료 공간, 문화 강좌실, 청소년공간과 북 카페 등이 설치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 기린미술관 개관5주년 기념

### 이흥재 초대전 (2관)

2022.4.1.(금) - 5.29.(일)

### 제22회 심흥재 개인전

2022.4.1.(금) - 5.29.(일)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46, 기린오피스텔3층**    **관장 : 이현옥(010-8993-0147)**